

도농불이(都農不二)

노영한
(본회 전무이사)

신토불이(身土不二)란 용어가 UR협상 과정에서 온 국민에게 국산 농산물을 먹자는 뜻으로 인식되어 왔다.

이렇게 짧은 기간에 신토불이가 국민의 가슴에 닿은 것은 농협의 노력도 컸지만 많은 국민들이 우리 농업, 농민, 농촌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며, 어떻게 하든지 농업을 지켜야 한다는 농업에 대한 애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대중가요 가수가 신토불이라는 노래를 부르고 농산물 또는 농축산물을 가공한 식품의 상표에 신토불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것을 보면 국산품이라는 품질보증을 받는 방편으로 신토불이가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신토불이가 어느정도 성공하자 농협을 중심으로 이번에는 도농불이(都農不二)를 외치게 되었다. “농촌은 뿌리 도시는 꽃”이라는 표어도 나왔다.

어찌 도시와 농촌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겠는가? 도시와 농촌은 둘이 아니고 하나라는 것과 농촌이 뿌리이고 도시가 꽃인데 뿌리가 썩어 없어지면 도시의 꽃도 시들어 버린다는데 모두가 공감하지 않을 수 없다.

UR협상때 농민들의 부르짖음에 도시인이 적

극 공감한 것도 이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도시인들이 골프를 왜 치는가에 대해서 쓴 글을 보니 도시인이 마음의 고향인 농촌을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글을 읽고 공감한 적이 있다.

도시와 농촌은 뿔래야 뿔 수 없는 하나이며, 더군다나 20년 전만해도 우리 대부분이 농민이 었거나 또는 농촌에 살았으며, 도시인이 된지 얼마되지 않기 때문에 더욱 도농불이는 피부로 실감하는 구호이다.

금년은 단군이라 대풍이라고 한다. 참으로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중국에서 먹을 쌀을 급히 수입해야 하였던 우리나라로서는 하늘의 큰 축복이 아닐 수 없다.

식량 자급률이 27% 정도에 머물고 금년 말이면 우리의 빛이 1,000억불을 넘게 되고, 무역수지 적자도 금년에 2백억불에 이른다는데, 쌀농사의 풍년은 온 국민의 마음을 푸근하게 하여주는 것이며, 풍년농사를 위해 피땀흘린 농민들의 노고는 아무리 감사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해피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 올해 추곡수매가를 결정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하는 양곡유통위원회(위원장 : 문팔용)에서 6시간에 걸친 난상토론에서도 생산자와 소비자 대표간에

최근 농축산물에
 대한 유해물질잔류 과장보도와
 연간 역대 이상 소득을 올리는 농가의
 집중적인 보도 및 이제 겨우 걸음마 단계인
 농축산물 수출을 전년대비 몇백프로 증가 등으로 국제경쟁력이
 있고, 이제 더이상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없는
 산업으로 착각하도록 한 매스컴 보도가
 도시와 농촌을 갈라 놓은 결과가
 되지 않았나 생각된다.

의견을 좁히지 못해 결론을 얻지 못하였다.

생산자 대표들은 이날 수매량을 줄이더라도 물가인상, 생산비인상 그리고 과거 2년간 수매 동결 등을 고려해 추곡수매가를 13.5% 올리자는 안에 소비자 대표는 올해 추곡수매가 인상은 바람직하지 못하며 올리더라도 지난해에 비해 2~5%를 초과할 수 없다는 주장이었다. 우여곡절 끝에 생산자 대표들이 당초 13.5%에서 7%로 양보하였으나 소비자 대표들의 동의를 얻지 못해 그 후 결국 생산자 대표가 퇴장한 가운데 2~5%안으로 정부에 인상률을 건의하게 되었다.

추곡수매가의 인상률을 떠나서 이제 농민 대표와 소비자 대표가 대화로는 해결할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었고, 특히 농민 대표가 퇴장한 가운데에서도 남은 위원끼리 추곡수매가 인상률을 결정해 버리는 용기에 농민들은 경악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분위기는 의료보험제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도농(都農)분리를 시정해 하나로 통합하자는 농민들의 주장이 금년 정기 국회에서도 처리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11월 11일은 농민의 날이었고 11월 17일 주일을 기독교에서는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등 11월은 농업의 달이다.

금년도 제1회 농업인의 날 행사도 일간지들은 합동결혼식 등 흥미거리만 보도하는 등 농민은 철저히 소외되었고 한우 경진대회도 언론에서는 로데오경기에 초점을 맞추어 보도하여 농축산업에 대한 도농불이(都農不二)가 농민들의 짝사랑으로 끝날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무엇이 우리 소비자로부터 농민과 간격의 골을 깊게 만들었나는 앞으로 깊이 조사분석 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농축산물에 대한 유해물질잔류 과장보도와 연간 역대 이상 소득을 올리는 농가의 집중적인 보도 및 이제 겨우 걸음마 단계인 농축산물 수출을 전년대비 몇백프로 증가 등으로 국제경쟁력이 있고, 이제 더이상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 없는 산업으로 착각하도록 한 매스컴 보도가 도시와 농촌을 갈라 놓은 결과가 되지 않았나 생각된다.

남북이 분단되고 영호남이 갈라지고 이제 도시와 농촌이 갈라진다면, 이는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도농불이(都農不二)는 구호로만 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할 것이다.